

제 3 장 글로벌 위험사회의 '세계주의적 계기' 또는 강요된 계몽

<이 장에서는 글로벌 위험사회의 규범적 지평 또는 글로벌 위험사회 이론의 규범적 틀을 조명하려 한다.>

● 글로벌 위험사회의 필연적 역설, 양면성

- 글로벌 위험사회가 갖는 계몽의 기능 : 과거의 확실성들이 파괴되고 거짓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예기치 못한 것에 대한 기대는 자명한 것이 더 이상 자명하게 여겨지지 않는 상황을 낳는다.(아렌트, 96)
- 과거에 대한 향수가 없는 새로운 비판이론, 이 새로운 비판이론은 위험해진 미래의 관점에서 현대의 과거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토피아'나 '비관주의'로는 이 이론의 성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오로지 '아이러니'와 '양의성'이라는 개념이 적절할 것이다. 이것이나 저것이나의 양자택일 대신 나는 이것과 저것 모두라는 새로운 양자합일을 추구한다. 이는 자기파괴와 새로운 시작의 능력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 사이에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1. 과거의 위험들 - 새 리스크: 글로벌 위험사회에서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 경영진에 의해 생산된 불확실성

- 리스크 관리의 전통적 도구는 정상적 흐름에 집중하고 극단적 현상을 부차적으로 생각한다.(가우스의 표준분포곡선) 그러나 글로벌 위험사회에서 이는 통하지 않는다. 우리의 주된 관심을 예외로 돌려야 한다. 인간이 만든 거의 모든 변수는 '거칠다' (=비직선적이고 성찰적인 현대화). 그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강력한 지식과 허리케인, 쓰나미 같은 '거친' 불확실성의 사례들은 점점 더 늘어난다.
- 큰 편차와 긴장감 넘치는 사건들을 분석의 중심에 세우는 방법론.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주안점을 리스크를 구성하는 글로벌 사회의 조건에 두어야지, 그 결과에 두어서는 안 된다.

● 글로벌 리스크의 특징은 무엇인가.

- 1) 위치와장소를 규정할 수 없다. 특정한 지리적 장소나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 2) 계산할 수 없다. 결과를 추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은 '가설적' 리스크이며, 과학이 산출한 무지와 규범적 불일치에서 기인한다.
- 3) 보상할 수 없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류에 대한 위협' 때문에 보상은 유효성을 잃고 예방을 통한 대비 원칙으로 대체된다.(101)

- 계산할 수 없고 서로 연결된 리스크는 세 가지 차원에서 위치 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 a) 공간적으로 국민국가의 경계, 심지어 대륙을 넘어 확산된다.(기후변화)
- b) 시간적으로 긴 잠복기(핵폐기물)를 거치기 때문에 미래의 결과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제한할 수 없다. 누가 피해자인가 하는 문제 자체도 이론의 여지가 많다.
- c) 사회적으로 새 리스크는 작용의 긴 연쇄고리를 가진 복잡한 과정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는 충분히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102)

☞ 모두를 위협하는 파괴력을 가진 재앙이 예상되면, 경험과 합리성에 의거하는 리스크 계산은 와해된다. 일어날 법하지 않은 것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한다. 경험과 과학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에다 상상력과 의혹, 픽션, 공포가 덧붙여진다.

● 신탁 관리자에서 피의자로

- 합리성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과학, 경제, 정치 같은 현대의 근본 제도들은 그들의 장치가 더는 확고한 토대를 갖지 못하고 현대의 기본 원칙들이 더 이상 자동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들은 이제 신탁 관리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되었다. 더 이상 리스크 관리자가 아니라 리스크의 원천으로 여겨진다.(104)

● 비극적 개인화

- 글로벌 위험사회의 결과 중 하나로 개인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 개인은 글로벌 세계의 불확실성 앞에서 '책임지는 소비자'가 되어 혼자 결정해야만 한다.
- 그러나, 개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명의 위협을 인지할 수 없는데다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 시스템의 개념 정의 권력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 글로벌 위험사회는 시대 개념이다. 그것은 현대가 만들어낸 역사적으로 새로운 사회장치와 관계 있다. 현대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실험적으로 첫 경험을 쌓았고 현재에도 그 경험은 진행되고 있으며, 아마 30년이나 50년 후에는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것이다.

2. 글로벌 위험사회의 '세계주의적 계기' 또는 역사의 간계

글로벌 리스크의 계몽 기능을 여섯 가지 개념 요소로 설명함

● '세계주의적' 계기란 무엇인가

- 서술적 개념인가 규범적 개념인가. : '현실'로서의 세계주의(다원적 단일문화주의)와 '원칙'으로서의 세계주의(타자를 같으면서 동시에 다른 존재로 인정하는 것)
- 종교, 국적, 상황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합치는 길은 무엇인가? : 모든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글로벌 리스크는 누구에게나 닥친다는 경험, 깊은 외상을 남기는 끔찍한 경험이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든다는 것이다.
- 세계주의적 계기란 서술적 개념이고 규범적 개념이다.

● 강요된 계몽: 언론화된 위험은 사회적 약자와 주변부 계층, 사회적 소수에게 발언권을 줄 수 있다.

-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 위험은 가난한 자, 주변부 계층과 사회적 소수에게 세계여론의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다. (카트리나 방풍 시 뉴올리언스 흑인 거주지의 처절하게 파괴된 장면 노출됨)
- 2005년 쓰나미 재앙을 보여주는 텔레비전 화면: 글로벌 위험사회의 제1법칙을 우리에게 전해줌. *재앙의 위험은 가난한 자를 추적한다. (110)*
- 글로벌 리스크의 공론 영역은 하버마스가 조명한 '공론 영역'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지닌다. 하버마스의 공론 영역은 참여 기회의 평등이나 모두가 지켜야 할 합리적 담론원칙의 의무를 전제한다. 위험의 공론 영역은 비자발성에 근거하며 정서적으로나 실존적으로 결정된다. '시스템의 강요' 뒤에 몸을 숨기는 잠재적 책임자들은 세계여론의 눈앞에서 인용된다. 책임을 추궁당한다. 위험의 공론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론은 순수하지 못하고 왜곡되며 선별되고 뒤섞여 끓어오른다.
- 리스크 갈등의 계몽 기능 : 리스크는 결과에 대한 이의를 통해 기존 질서를 흔들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

의 형성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로 간주될 수 있다. 글로벌 리스크는 조직적인 무책임성의 기제를 혼란에 빠뜨려 정치행위로의 길을 열어줄 힘이 있다. (112)

● 참호를 넘어선 강제 소통

- 공적으로 인지된 리스크는 서로 등 돌린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강요한다. : 리스크는 문화와 언어, 종교와 시스템, 그리고 국가 내 및 국제정치적 의제의 자기만족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며, 그것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만들고, 서로 모른 척하거나 적대시하고 투쟁하는 정당과 진영, 국가 사이의 협상을 위한 배경을 만들어준다. (113)
- 글로벌 리스크가 비자발적 민주화를 가져옴 : 주민의 저항 없이 핵발전소를 세울 수 없고, 초국가적 비정부기구의 비판적 검토 없이 유전을 개발할 수 없으며, 신약 개발에 위험을 열거하지 않고 그것의 발견을 환영할 수 없다.

● 정치적 카타르시스

- 2005년 재앙은 글로벌 사건이 정치적 카타르시스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로 가는 일방통로는 아니다.(114)

● 강요된 세계주의

- 글로벌 위험사회에서 세계주의는 통제할 수 없는 전염성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우연히 우리에게 닥쳐오고 수동적으로 겪어야 하지만 동시에 경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시작을 능동적으로 시행하라고 자극하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

● 국가적 책임의 회귀 또는 왜 신자유주의 국가는 실패하는가

- 기후변화를 막는 것은 원래 누구의 과제인가? 한동안 그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개개인이 처리해야 할 도전인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개인이 모여서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이다. 이 때 정부가 불려나왔다. 정부조차 '개별적으로는' 무기력하다. 유럽연합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 해결자라고 할 수 있다. 수십억 유로의 유럽연합 예산으로 대체 에너지에서 에너지 절약 기술에 이르기까지 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다.
- 혹자는 정부는 오래 전에 이미 경제적 결정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인재로 인한 기후변화의 치명적 결과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재앙의 글로벌 연출에 들어 있는 '세계주의적 계기' - 글로벌 리스크에 잠들어 있는 정치적 '거인'-를 발견한 것처럼 보인다. "부시 대통령이 서구의 지도자가 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모든 동맹국이 중요시하는 녹색사고와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Friedman 2006:7) -서구 또는 세계의 새로운 접합제가 될 수 있다.

● 세계주의적 행위의 역사적 대안 또는 글로벌 위험정책의 포지티브 섹 게임

- 글로벌 리스크의 또다른 특이점은, 그것이 경계를 넘는 정치행위를 필요로 하지만 여차피 불가능한 보편적 가치함의 때문에 아니라 위험이라는 지상 종교에 대한 신앙이 모두를 공동 행위로 몰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리스크 신앙의 세속적, 지상적 측면은 위험 종교가 모든 국경을 초월한 상호 의존성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상호의존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묶여야 다른 사람들을 그 일에 끌어들이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스스로 구속될 수 있다. 즉 서로 구속하고 서로 강화하는 셈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호의존

성이 국가나 경제 주체에게 스스로 피해를 입지 않고 자기이익을 향상시키려면 타자의 이익도 고려하라고 강요한다. 거기서 포지티브섬 게임이 나오는 것.

- 국민국가의 외교라는 흘러간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주의적 세계내정이라는 최현대식 모델의 윤곽이 드러난다. 즉 탈국가적, 다변적, 복합체적이며, 경제주의적이고, 모든 측면에서 극히 평화적이며, 모든 방향으로의 상호의존성을 설파하고 곳곳에서 우호세력을 찾지만 어디에서도 적을 언급하지 않는다. '국가이익'은 은밀하게 두꺼운 보자기 속에 감추어 두고 '기후보호' '세계주의' '인원' '인도주의' 같은 새로운 단어로 보자기를 짠다.
- 글로벌 리스크가 열어주는 행위전략은 자본과 국가 간의 신자유주의 연합이 탄생시킨 질서를 뒤엎는다. (글로벌 리스크는 행위 집단에게 새로운 정당성의 원천과 행위 선택사항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와 시민 사회운동에 전권을 위임한다. 글로벌 리스크는, 투자 결정의 결과로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잠자고 있는 거인인 소비자의 힘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글로벌 자본을 무력화한다. 반대로 글로벌 시민 사회와 그 행위 주체들의 목표는 시민사회와 국가의 결합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세계주의적 국가 형태라고 말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국가의 동맹 형태는 자본 이익을 극대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를 도구화한다. 반대로 시민사회의 모습을 땀 세계주의 국가라는 이념은 저항력 강한 다양성과 탈국가적 질서를 고안해서 실현하려는 목표를 지닌다. 신자유주의 의제는 자기조절과 자기 정당화의 분위기를 풍긴다. 반면 시민사회의 의제는 급진 민주주의적 세계화의 새로운 거대담론을 위한 투쟁과 인권, 세계정의의 아우라를 발산한다. 이는 단지 소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세계주의적 현실정치의 표현이다. 국민국가에 기초한 현실 정치의 원칙들과 국가 수단을 사용하여 국가 이익을 추구한다는 원칙들을 세계주의적 현실 정치의 원칙으로 대체해야 한다. 정치구조와 활동이 세계주의적인 것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국가 이익은 신장될 것이며, 글로벌 시대에 국가구조의 비중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